

저술 통해 서양과학·의학 소개한 영국 선교사

벤자민 홉슨 (1816~1873년)

朴星來 (한국외국어대 사학과 교수/과학사)

올해가 '임오군란'이 일어났던 임오년이다. 지금으로부터 꼭 1백20년 전의 사건이지만, 사실 그 해는 우리 역사상 대단히 중요한 한해였다. 그 해 이 변란이 일어나기 조금 전에 조선 왕조는 최초로 서양과의 교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해 1882년에 조선은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맺었고, 그에 이어 서양 나라들은 다투어 통상관계를 맺기 시작했던 것이다. 우리나라가 오랜 은둔의 나라에서 처음으로 세계에 발디디 나가기 시작한 셈이다.

그런데 바로 그 해 가을에 우리 근대사의 유명한 상소로 꼽히는 지식영(池錫永, 1855~1935년)의 '개화상소'란 것이 있다. 오랜 동안 굳게 닫혀있던 나라를 열고 개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책을 읽고 또 널리 보급해야 한다고 1882년 9월 지식영이 상소를 올려 추천한 책들은 다음과 같다. — 김옥균이 지은 「기화근사(箕和近事)」, 박영효의 「지구도경(地球圖經)」, 안중수(安宗洙)의 「농정신편(農政新編)」, 김경수(金景遂)가 펴낸 「공보초략(公報抄略)」 등과 외국인이 지은 「만국공법(萬國公法)」, 「조선책략(朝鮮策略)」, 「보법전기(普法戰紀)」, 「박물신편(博物新編)」 등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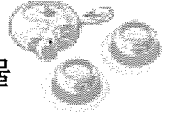
저서 「박물신편」 지식영이 상소 추천

이 가운데 마지막 책 「박물신편」을 지은 영국의 의사이며 선교사가 벤자민 홉슨이다. 홉슨(Benjamin Hobson, 중국 이름 = 승信, 1816~1873년)의 책 「박물신편」이 당시 얼마나 우리 선조들에게 개화사상을 익히는데 널리 사용되었던지는 지금 잘 밝혀져 있지 않다. 하지만 그가 지은 책들은 개화기 우리나

라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만은 분명하며, 그 대표적인 책 하나가 바로 지식영이 배워야 한다고 상소했던 「박물신편」이다. 자연과학 전반을 다룬 이 책 이외에도 의사였던 홉슨은 의학책을 4가지 지었는데, 이 의학서 역시 우리나라에 근대 서양의학을 소개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1866년에 최한기(崔漢綺)가 지은 「신기천험(神機踐驗)」이란 책은 다름 아닌 홉슨의 4가지 의학서와 「박물신편」 등을 참고해서 편집해 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1850년대 중국에서 홉슨이 발행했던 책들이 10여년 후에 최한기에 의해 이 땅에 전해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882년의 지식영 상소문이 이 책을 거론했던 것은 바로 홉슨의 책들이 당시 조선에 제법 보급되어 있었던 것을 짐작하게 한다.

홉슨은 영국 런던선교회(The London Mission)의 선교사이며 런던대 의과를 졸업한 의사로서 1839년 아내 애비진과 함께 교회의 파견으로 중국에 오게 되었다. 그 해 12월 18일 마카오에 도착한 이들 부부는 그 곳에서 의학학을 통한 선교에 종사하다가 1843년에는 홍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하지만 1845년에 그의 아내가 죽자 그는 한때 영국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1847년에 그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때 이미 그는 초기 중국 선교사로 명성을 남기고 있는 모리슨의 딸을 아내로 데리고 온 것이었다. 그리고 1848년부터 광주(廣州)에서 병원을 열고 환자를 진료하면서 선교에 힘쓰게 되었다.

모리슨(Morrison, Robert 1782~1834년)은 중국에 프로테스탄트(개신교)를 소개한 초기의 대표적 선교사로, 바로 홉슨이 소속되었던 런던선교회 소속이



1백20년 전 조선 말기의 과학자 지석영(池錫永)이 개화를 위해 상소를 올려 추천한 책 중에는 영국의 선교사이며 의사였던 벤자민 홉슨이 지은 「박물신편(博物新編)」이 포함되어 있다.

1839년 중국에 간 홉슨은 선교사로 또 의사로 봉사활동을 계속하면서 저술을 통해 중국인들에게 서양의 과학과 의학을 소개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홉슨이 펴낸 「박물신편」은 기상·물리·화학의 기초적인 것이 제1집에, 천문학이 제2집에 그리고 제3집에는 동·식물에 관한 내용을 담은 책으로 우리나라 근대 과학 소개에 크게 기여했다.

었다. 아직 기독교 선교가 금지되었던 1807년 영국의 동인도회사 소속의 번역자로 중국에 온 모리슨은 말하자면 비밀리에 선교 사업에 종사했고, 성서의 번역에도 힘썼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서 중국 선교는 자유로워졌고, 그 때문에 그를 기념하는 학교가 1835년부터 발기되어 1839년 마카오에서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이 학교의 첫 졸업생 중 하나가 바로 용평(1828~1912년)이다. 용평은 중국인 최초의 서양 유학생으로 그의 회고록 「서학동점기(西學東漸記)」는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다. (을유문고-159)

용평의 「서학동점기」를 보면 그 자신에게 이 학교 입학의 연락해 준 인물이 바로 우리의 주인공 홉슨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1835년 겨우 여덟살 나이에 아버지를 따라 마카오에 갔던 용평은 거기서 선교사 부인이 시작한 서양 학교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그 학교가 바로 문을 닫는 바람에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집안 일을 돕고 있다가, 마침 마카오의 서양 사람이 하는 출판사에서 인쇄된 책의 쪽수를 맞춰 정리해 주는 일을 맡아 하는 심부름꾼으로 일하기 시작한 때였다. 이미 영어 알파벳과 아라비아 숫자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은 12살 소년에게 어렵지 않은 것이었다. 그런데 홉슨의 편지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홉슨은 두달 동안 자기가 하고 있던 병원에서 용평을 데리고 있으면서 쪽수를 보고는 모리슨학교에 입학하게 해 주었다. 그것이 1841년이었다고 그는 적고 있다. 아마 이런 첫 연락을 홉슨이 해 준 것 빼고는 그들 두 사람의 관계는 더 발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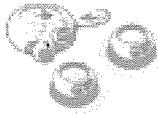
이렇게 초기에 광주에서 병원을 차려놓고 선교사이

며 의사로서 봉사활동을 하던 홉슨은 교회의 일과 함께 중국인들에게 서양의 과학과 의학을 소개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1843년 8월 22일~9월 4일에 각 선교회의 선교사들이 홍콩에서 「성경」 개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중국에서 활동하던 여러 교파의 목사들이 참석했는데, 런던선교회 소속이 제일 많은 듯하고, 그 한 사람으로 홉슨도 참석했다. 그밖에도 그는 1853년 「요한복음」을 번역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그러나 그가 주로 이름을 남긴 것은 기독교 선교 사업 때문이 아니라 서양 과학과 의학 소개책 때문이다.

물리·화학·천문학·동식물 등 소개

1854년 건강이 나빠진 그는 상해에서 얼마동안 휴양을 취하기도 했으나 바로 광주로 돌아갔다. 바로 이 시기에 그는 「박물신편」을 상해에서 펴낸 것으로 보인다. 1856년에는 제2차 아편전쟁으로 병원을 꾸러가기 어렵게 되자 그는 홍콩으로 이사했다. 그리고 이듬해는 상해로 옮겨 인제(仁濟)의원에서 의사로 일하기도 했으나, 1858년 12월 18일 상해를 떠나 바로 영국으로 귀국하고 말았다. 상해의 황포강(黃浦江) 강변에는 왕도(王韜)를 비롯한 당대의 중국인들과 친지들이 그를 전송하기도 했다. 이 시기 동안 그는 정력적으로 과학과 의학서를 써냈다.

「박물신편(博物新編)」은 1855년 상해에서 출판되었다. 기상·물리·화학의 기초적인 것이 제1집에, 천문학이 제2집, 그리고 제3집에는 동물·식물에 관한 기초지식이 나열되어 있는 기초과학서로 1백32쪽이다. 제1집은 5편으로 구성되었는데, 지기론(地氣論),



열론(熱論), 수질론(水質論), 광론(光論), 전기론(電氣論) 등이다. 지기론은 공기에 관한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풍우침, 한서침, 산소, 질소, 탄산가스, 황산을 비롯한 몇 가지 산(酸) 등등이 설명되어 있고, '물질불멸의 법칙'(物質不滅定律), '만유인력의 법칙' 등이 설명되어 있다. 열론은 열의 생산 이용 등을 설명하고 화륜선과 증기기관의 원리도 설명하고 있다. 다음 수질론, 광론, 전기론이 각각 물, 빛, 전기에 관한 과학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여기 수질론에는 세상을 구성하는 원질(元質)이 모두 56종이라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 원소를 가리킨다. 제2집 천문학 부분은 이미 흡슨이 1849년 따로 출판했던 25쪽의 '천문약론'(天文略論)을 여기 포함시킨 것이다. 26절로 구성되었는데, 지구, 낮과 밤, 행성, 각국 토지와 인물의 다름, 4대주, 인구론, 지구도 행성, 지구의 공전과 계절, 월식, 바다의 조석, 수성, 금성, 화성, 소행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성, 항성 등등을 소개하고 있다. 중국에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포함한 서양 근대천문학 지식을 대강 다 소개한 최초의 문헌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제3집 짐승과 새 그리고 곤충 등을 소개하고 있다. 원숭이, 코끼리, 호랑이, 표범, 개, 곰, 낙타에서부터 온갖 새 등을 소개하고 당시 유럽 학계에서 알고 있는 동물이 30만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 동물을 8종류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중국 청소년들에 영향준 과학도서

「박물신편」은 당시 중국의 청소년들에게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유리 막대를 마찰하여 전기를 일으키면, 작은 종이 조각이 끌려가는 현상을 읽고 이를 실험하면서 서양 과학의 놀라운 발달에 주목한 중국의 젊은이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부가 결국 과학자로 성장하기도 했다. 더구나 이 책은 일본에서 1868년과 1876년에 각각 출판되었는데, 중국판 보다 더 상세한 주석을 달아 내었을 정도였다. 지식영이 1882년의 개화상소에서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나선 것은 바로 이런 배경을 이해할 때 더 잘 알 수가 있을 듯하다. 또 이 「박물신편」은 1883년에 우리나라 첫 근대신문 「한성순보(漢城旬報)」를 발행할 때 크게 참고하여 많은 기사를 이 책에서 베껴 낸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도 하다. 개화기 우리나라의 근대 과학 소개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흡슨의 의학서 역시 대단히 중요한데, 「전체신론(全體新論)」, 「서의약론(西醫略論)」, 「내과신설(內科新說)」, 「부영신설(婦嬰新說)」이 그것이며, 이들은 뒷날 「합신씨의서오종(合信氏醫書五種)」이란 책으로 묶여 나오기도 했다. 이들 역시 일본에서 1857년부터 3년 사이에 모두 출간되었고, 「전체신론」은 1874년에도 다시 출간되었을 정도였다. 또 바로 이 의학서와 「박물신편」이 우리나라에서는 최한기의 「신기천험」(1866) 8권의 대본이 되어 주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 책들이 우리나라에서도—그대로 또는 일본에서처럼 주석을 더 붙여—출판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최한기는 그의 「신기천험」 1~2권을 거의 흡슨의 「전체신론」을 토대로 썼음이 밝혀져 있다. 이는 최한기의 서문에도 이미 밝혀져 있는 사실이다. 최한기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은 수정해서 썼는데, 예를 들면 기독교적인 표현을 없애고, 흡슨의 '造化'(造化) '신령'(神靈) 등은 반드시 '운화'(運化) '기화'(氣化)라는 표현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특히 최한기의 「신기천험」이 원래의 흡슨 책 보다 못한 부분은 원저에는 1백13장의 해부도 등 그림이 있는데, 최한기의 「신기천험」에는 이 그림이 한장도 없다는 점이다. 최한기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신기천험」이 바로 흡슨이 중국에서 1851년부터 1858년 사이에 내놓은 서양 과학과 의학서를 그대로 대본삼아 국내에 최초로 서양 과학과 의학을 소개한 중요한 사건이다. 그러나 1859년 영국으로 돌아간 흡슨이 그 후 어떻게 지냈는지, 또 최한기가 그의 책 내용을 국내에 소개한 과정과 그 영향 등에 대해서는 나는 아직 연구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더 찾아내어 정리할 생각이다. ⑤7